

2023학년도 모의논술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교사용]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 2023학년도 모의논술 개요

2023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은 우리 대학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창의성과 논리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 하에서 3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분류요약능력, 자료평가 및 사례활용능력, 비판능력, 논술논증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023학년도 모의논술 역시 이전의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핵심사항으로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이번 모의논술도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문제와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인간 행동의 이성적 또는 감정적 기초’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생활과 윤리』, 『경제』 교과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나아가 이 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

[문제 1]의 제시문은 관련 학자의 글 등 다양한 자료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에 맞는 부분을 발췌하였으며, 문제 의도에 맞게 출제진이 수정, 변형하거나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각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 <제시문1> 『철학사상과 사회과학의 만남』 (고영복, 2005)
- <제시문2> 『사회생물학과 윤리』 (피터 싱어 저, 김성한 역, 1999)
- <제시문3> 『인공지능 법과 공존윤리』 (한희원, 2018)
- <제시문4> 『도덕철학』 (제임스 레이첼즈 저, 서광사 역, 1989)

[문제 2]의 <자료1>, <자료2> 역시 고등학교 교과 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3]은 [문제 1]에 제시된 주요 논지와 [문제 2]의 사례를 활용하여 구체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논의를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 평가항목과 문항별 배점

그동안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비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력을 주로 평가해 왔다. 대학에서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평가항목

- ①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가: 50%
 - ② 논리 전개 혹은 구성은 잘 되었는가: 20%
 - ③ 표현력 및 어법: 15%
 - ④ 창의성: 15%
- ※ 답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위의 항목 ②,③,④의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글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문항별 배점

- [문제 1] : 40점
- [문제 2] : 40점
- [문제 3] : 20점

○ 채점등급별 점수

[문제 1], [문제 2]

- ① A 등급: 40점
- ② B 등급: 32점
- ③ C 등급: 24점
- ④ D 등급: 16점
- ⑤ E 등급: 8점
- ⑥ F 등급: 0점

[문제 3]

- ① A 등급: 20점
- ② B 등급: 16점
- ③ C 등급: 12점
- ④ D 등급: 8점
- ⑤ E 등급: 4점
- ⑥ F 등급: 0점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 문항별 세부 채점지침과 채점등급

[문제 1] <제시문1> ~ <제시문4>는 인간의 행위가 무엇에 기초하는지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 채점지침 】

[문제 1]은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 각 입장을 논지를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인간의 행위가 감정과 이성 중 무엇에 기초하는지에 대해 각 제시문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인간의 행위는 감정에 기초한다’는 입장과 ‘인간의 행위는 이성에 기초한다’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요약했다라도 이를 종합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잘 정리하지 못했다면 감점을 감수해야 한다. 제시문의 난이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문제 1]의 <제시문1>, <제시문4>는 ‘인간의 행위는 감정에 기초한다’는 입장으로, <제시문2>와 <제시문3>은 ‘인간의 행위는 이성에 기초한다’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시문을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내용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제시문의 논지를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1>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이다. 욕구의 발동과 충족 여부에 따라 변하는 감정은 생물이 생존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인데 이 점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 인간은 문명화의 과정에서 동물적 욕구만이 아닌 다양한 욕구를 지니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감정도 다양하며 복잡하고 세련되게 발전하였으며, 철학자들이 이성의 영역이라고 보았던 윤리조차도 감정을 기초로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4>는 도덕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도덕이란 어떤 사물이나 행동이 선하거나 악한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객관적인 옳음이나 그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은 객관적 가치 기준에 기초한 객관적 평가일 수 없으며, 어떤 행동이 나쁘다는 판단은 단지 그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결국 <제시문1>은 인간의 행위가 감정에 기초한다는 점을 동물적 생존 차원의 행위에서 출발하여 문명적, 도덕적 행위까지 넓혀서 설명한다면, <제시문4>는 도덕 문제에 집중하여 객관적 옳고 그름을 다룬다고 여기는 도덕조차도 개인의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반면에 <제시문2>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존재인데 이는 곧 집단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화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정당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익만이 아닌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공평무사함, 달리 말해 공정함이 요구된다. 인간의 행위가 사적이고 이기적 차원을 벗어나 공정함을 추구하는 윤리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결국 이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제시문3>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스스로 도덕법을 세울 뿐 아니라 자신과 사회를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자유와 자결권을 가진 존재이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비의 합리성을 평가할 때에도 주어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상의 수단을 선택하는 수단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소망 자체가 합리적인가를 따지는 목적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자신의 가치체계에 따른 이성적 판단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제시문2>는 인간의 행위가 공정함을 추구하는 윤리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이성이 행위의 기초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제시문3>은 합리적 소비에 대한 평가도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점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 사이의 논점 차이까지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 채점등급 】

- A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차이점까지 섬세하게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 B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각 제시문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 C :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를 종합한 두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 D :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 E :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문제 2] 아래 <자료1>과 <자료2>는 각각 A국의 축산시장변화와 B국의 도시별 식품소비에 관한 지표를 보여준다. <자료1>과 <자료2>가 각각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

【 채점지침 】

[문제 2]는 두 개의 자료를 [문제 1]의 두 입장과 관련시켜 해석하고 각 자료가 어떻게 두 입장의 지지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자료를 해석하여 두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을 인간의 이성적, 감정적 행위와 연관지어 각 자료가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문제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1>과 <자료2>를 각각 해석하고 각 자료에서 나타난 현상이 [문제 1]에 등장한 상반된 두 입장과 관련됨을 추론해야 한다. <자료1>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A국의 축산시장 변화추이를 보여주며, 구체적으로 돼지고기 생산량과 돼지고기 수입량, 국내외 돼지전염병의 발생 건수,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은 소비자의 선택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주어진 자료 내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를 보면 A국의 주요 수입국에서 돼지전염병이 2018년 2건, 2019년 5건 발생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수입량이 감소한 것이 나타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돼지전염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돼지고기 국내 생산량은 오히려 약간 증가했다. 그런데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 변화를 살펴보면, 주요 수입국에서 돼지전염병이 발생한 기간인 2018년과 2019년에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2020년에 다시 2017년 수준의 소비량을 회복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수입국에서 발생한 돼지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국산 돼지고기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자료2>는 B국의 ‘가 도시, 나 도시, 다 도시’의 식품소비 관련 지표를 제시한다. 먼저 식품표시활용도, 식품안전정보 활용도는 식품을 선택하는 행위의 양상, 즉 행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표시활용도와 식품안전정보 활용도는 그 값이 높을수록 식품 구매 시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인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영양균형상태와 식품소비만족도는 식품 선택의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영양균형상태는 객관적 평가결과로, 식품소비만족도는 주관적 평가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도시의 식품소비 행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표시활용도와 식품안전정보 활용도는 모두 도시 ‘가’에서 가장 높고 도시 ‘나’에서 가장 낮으며, 식품 소비행위의 결과를 보여주는 영양균형상태와 식품소비만족도 역시 도시 ‘가’에서 가장 높고 도시 ‘나’에서 가장 낮다. 이 자료를 토대로 식품소비 행태 중 식품표시활용과 식품안전정보 활용을 이성에 근거한 행위로 연결하여, 이러한 행위가 영양균형상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태와 식품소비만족도에서 모두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성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종합하면 <자료1>은 [문제 1]의 인간의 행동근거가 이성적 판단에 따르기보다는 감정에 좌우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돼지전염병은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100여년 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돼지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성적 판단에 따르면 국산 돼지고기는 돼지전염병으로 인한 위험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자료에서 나타난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의 변화 추이를 보면 인간의 행동근거가 감정에 좌우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1>은 [문제 1]에서 감정의 세계가 무시될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이라는 주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료2>는 합리적인 식품 구매를 위해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한 결과 더 나은 영양균형상태와 높은 만족을 얻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행동에서 이성적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식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영양과 안전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곧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객관적 행위원칙을 고려함을 의미한다. 식품표시와 식품안전정보와 같은 객관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이 더 높은 도시 ‘가’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영양균형상태가 우수하고 소비만족도 높았다. 이는, [문제 1]에서 인간은 합당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 대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최상의 결정을 내리며, 이러한 이성에 기반한 행위선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면, [문제 2]에서 제시된 두 자료가 인간의 행동근거로서 이성과 감정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 1]의 상반된 입장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료1>과 <자료2>에서 인간의 행동근거가 되는 지표들과 그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크게 구분하여 이성이나 감정에 따른 행동에 의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1>에서 주요 수입국의 돼지전염병 발생이 실질적인 위험과 상관없이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게 하였고, 결국 이러한 감정에 기반한 행동선택이 객관적으로는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 감소로 이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2>에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 행위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이성적 판단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근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1>과 <자료2>의 해석을 바탕으로 각 자료가 [제시문1]의 한 입장과 갖는 논리적 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하였는지가 채점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결국 두 자료는 기본적으로 인간 행동의 근거로서 이성과 감정의 작용과 그 결과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답안의 포인트는 [문제 2]에서 제시된 두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 1]에서 구분된 두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일관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가능한 논의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먼저, 두 자료를 각각 [문제 1]의 두 입장과 연관지어 <자료1>은 ‘인간의 행동은 감정에 근거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자료2>는 ‘인간의 행동은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논의할 수 있다. <자료1>의 경우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이 제시되고 결과적으로 줄어든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을 보여줌으로써 감정에 따른 인간 행동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인간행동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 1]의 <제시문1>과 <제시문4>에서 감정이 사실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객관적 옳음과 그름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판단은 개인적 감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서 A국의 소비자들이 느낀 위험은 그 자체로 옳은 판단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자료2>는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활용하였을 때 더 나은 영양균형상태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행동의 근거에 이성적 판단이 놓이는 현상과 그에 따른 긍정적 결과를 제시한다. <제시문2>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필요하며 행위의 정당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제시문3>에서는 인간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바탕으로 합당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성적 행동을 올바른 것으로 본다. 인간이 합리성을 판단하는 가치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이성의 작용이 요구되며, 개인의 선호라는 주관적인 가치체계라 할지라도 적절한 경험이나 증거에 의해 생성된 판단기준에 따라 일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자료2>를 해석함에 있어 이성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사실, 즉 식품의 표시정보나 안전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객관적인 영양균형상태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해당하는 식품소비만족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제시문2>와 <제시문3>에서 행위의 옳고 그름이 이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주장을 옹호하고, 누구에게나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때 행위의 결과도 더 좋았음을 연결지어 설명해야 한다.

<자료1>과 <자료2>를 [문제 1]의 제시문의 입장과 적절히 연결하지 못하면 <자료1>과 <자료2> 모두 이성적 판단의 우월성을 옹호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자료1>은 감정에 좌우되어 해외의 돼지전염병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이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주며,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 반면에, <자료2>는 이성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영양균형상태와 식품소비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1]의 <제시문1>과 <제시문4>에서 인간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옳음과 그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는 인간의 감정에 근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자료1>은 인간의 행위 선택에서 감정이 중요하며 그 자체로 옳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처럼 감정과 이성이 모두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원리로 작용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문제 1]의 제시문들에 등장하고 있으므로, <자료1>과 <자료2>를 모두 이성적 행위가 더 우월한 것으로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자료2>를 해석함에 있어, 세 도시가 이성과 감정 중 무엇을 따르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자료2>가 두 입장을 모두 지지한다는 단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에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자료2>는 행위의 근거가 되는 이성과 감정의 작용뿐만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영양균형상태와 주관적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식품소비만족도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보를 통해 이성을 따르는 행위와 감정을 따르는 행위의 결과를 추론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풍부한 답안이 될 것이다. 또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문제 1] 제시문의 문구를 단순 반복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입장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각 입장의 옹호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는지가 채점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 채점등급 】

- A : <자료1>과 <자료2>에 제시된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충분히 서술한 답안
- B : <자료1>과 <자료2>에 제시된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서술의 적절성이나 충분성이 부족한 답안
- C : <자료1>과 <자료2>에 제시된 바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나 자료의 내용과 [문제 1] 제시문의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수준에 그친 답안
- D : <자료1>과 <자료2>에 제시된 바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나 [문제 1]의 제시문들을 잘못 연결 지었거나 하나의 입장만 옹호한 불충분한 답안
- E : <자료1>과 <자료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가 부적절한 답안
- F : <자료1>과 <자료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했고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문제 3] 한 지방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하려고 한다. 이 일을 맡은 부서의 한 팀은 원자력발전의 중요성, 발전소를 이 지역에 건설함으로써 얻게 될 이득, 시설의 안전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메시지로 구성된 광고를 제안했다. 다른 팀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여 최신 전자제품을 즐기는 가족의 모습과 멋진 전기자동차를 타고 신나게 여행을 즐기고 있는 젊은 연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광고를 제안했다. 이 두 가지 중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광고를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 채점지침 】

[문제 3]은 인간행위가 이성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감정에 근거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그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이성에 호소하는 전략과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지를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 1]의 <제시문1>, <제시문4>는 ‘인간의 행위는 감정에 기초한다’는 입장, 그리고 <제시문2>와 <제시문3>은 ‘인간의 행위는 이성에 기초한다’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 2]의 <자료1>은 인간의 행동이 감정에 기초함을 시사하는 반면, <자료2>는 인간 행동의 이성적 기초를 옹호하는 자료이다. [문제 3]에 답을 함에 있어, 학생들은 먼저 원자력발전의 중요성, 발전소 건설이 지역에 가져올 이득, 발전시설의 안전성 등에 관한 상세한 메시지로 구성된 광고는 지역 주민들의 이성에 호소하는 전략에 해당함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여 최신 전자제품을 활용하고 전기자동차를 타면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이미지로 구성된 광고는 주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임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이성에 기반한 광고가 주민 설득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문제 1]의 <제시문2>와 <제시문3>, [문제 2]의 <자료2>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논술해야 한다. 즉, 인간은 사적이고 이기적인 차원을 벗어나 이성에 기초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한다는 점, 그리고 개인이 어떤 것을 소망하고 원할 때 수단적 합리성이 아니라 소망 자체가 합리적인지를 이성에 기초하여 판단한다는 [문제 1]의 <제시문2>, <제시문3>의 주장을 토대로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과 안전성 등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성의 작용에 부합함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문제 2]의 <자료2>를 토대로 사람들은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이성적 선택을 했을 때 본인의 선택에 대한 만족도 높음을 연결지어, 두 가지 광고전략 중 이성에 호소하는 전략이 일시적 즐거움이나 좋은 기분에 호소하는 전략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반면에 지역주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주장을 [문제 1]의 <제시문1>과 <제시문4>, 그리고 [문제 2]의 <자료1>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논술해야 한다. 즉,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이며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조차도 감정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문제 1]의 <제시문1>, <제시문4>의 주장을 토대로,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누리게 될 즐거움과 긍정적 감정에 초점을 둔 광고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통상 사람들이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음에 착안하여,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설득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 2]의 <자료1>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문제 3]의 핵심은 학생들이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행위의 이성적 기초와 감정적 기초에 관한 [문제 1]의 일반 논리와 [문제 2]에 제시된 자료를 공익광고 전략이라는 특수한 사례에 적절히 적용하여 본인의 선택과 판단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이다. 또한 제시문과 자료를 활용하라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제시문과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제시문과 자료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까지 간략하게 포함한다면 논제의 조건에도 맞고 풍부한 좋은 답안이 될 것이다.

【 채점등급 】

- A : 두 가지 공익광고 전략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 B : 두 가지 공익광고 전략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다소 미흡한 답안
- C : 두 가지 공익광고 전략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본인의 주장없이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 D : 두 가지 공익광고 전략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제시문과 자료를 잘못 연결하여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 E : 두 가지 공익광고 전략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 F : E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